

광주학생독립운동 중국 신문 보도에 관한 기술적 연구*

A Descriptive Study on Chinese Newspaper Coverages of Gwangju Student Movement

박 성 우 (Seongwoo Park)**

목 차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3. 보도 간 인용관계 |
| 2. 최초 보도 | 4. 결 론 |

초 록

새로운 사료의 발굴은 향후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새로운 해석과 연구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발굴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중국 보도의 특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보도가 동일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료를 동일하게 인용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보도라고 새롭게 주장된 1929년 12월 6일의 보도와 광주학생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2월 6일의 서울에서의 격문 배포와 체포 사건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행해진 최초 보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해당 신문의 자체 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현지의 앞선 보도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혔다. 셋째, 보도 내용은 신문사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피인용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discovery of new historical resources is important in that it ensures the sustainability of future researches and enables new interpretations and expansion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reports related to the newly discovered Gwangju Student Movement in terms of contents. In particular, since Chinese reports contain the same expressions and contents, we tried to figure out which materials from Korea and Japan were cited the same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s there we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orts on December 6, 1929, which were newly claimed as the first reports, and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was explained in detail.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indication that the distributing of manifesto and arresting case on December 6th in Seoul was related to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it should be viewed as the first reports made to support it. Second, in previous studies, it was revealed that the contents known as the newspaper's own reports were actually quoted from previous reports in Korea or Japa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reports could be affected by the citation report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ewspapers.

키워드: 광주학생독립운동, 중국 신문 사료

Gwangju Student Movement, Chinese Newspaper Records

* 이 연구는 2022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ulturepark@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22 5864)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223-238,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22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연구의 필요성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1월 중 광주 지역에서 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1929년 2월 광주 지역의 사건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1930년 3월까지 진행된 학생 주도의 독립운동을 일컫는 표현이다(윤선자, 2010; 김성민, 2013). 근래에는 전국 확산 과정에서 나아가 중국·일본·미국 등지의 한국인의 항일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장세운, 2020; 허성태, 임영언, 2020; 김재기, 2021; 이지은, 2021).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원하며 재외한국인의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과 인식을 다룬 연구는 2010년 들어서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손과지(2010)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재기(2015), 장세운(2020), 이지은(2021), 박성우(2022)의 연구가 이어져왔다. 이들 연구는 첫째,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당 차원에서의 지지와 성원을 분석한 연구(손과지, 2010; 김재기, 2015), 둘째, 중국 내 각지의 한국인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끼친 영향(김재기, 2015; 장세운, 2020; 이지은, 2021), 셋째, 발생 사건이 중국 신문에 전파되는 정보원의 경로 추적(박성우, 2022)으로 나뉜다.

중국에서는 광주에서의 사건 발생 1달 이후, 1929년 12월 서울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1930년 2월까지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한국인들의 움직임, 중국 국민

당과 공산당 각 당 차원에서 발표한 지지 성명, 평론 등이 실렸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손과지, 2010; 김재기, 2015).

한편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중국 내 한국인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 한국인 단체의 지지운동(김재기, 2015)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인 반응과 대응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지은, 2021)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만주 지역에서의 호응이 기존 알려진 실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을 밝히는 등(장세운, 202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파급력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주가 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중국 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신문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신문 사료는 발생한 사건의 전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다(박성우, 2022).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우 11월 광주에서 발생한 초기 사건은 바로 일본에 의해 보도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초기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고 전파되기 어려웠다(김성민, 2013). 이 점에서 국내 보도에서부터 국외까지 사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국 신문 보도는 일본 총독부의 공식 발표나 중국 내 당 차원에서의 전보만큼 정보 전달과 당대 인식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신문에 관해 58건의 보도를 직접인용하였는데, 이 중 9건은 보도 제목이나 보도일자 등 보도를 특정시킬 수 있는 언급이 없이 신문명만

제시) 하였으므로 식별가능하게 명시된 보도는 총 49건이었다. 이 중 중앙일보에서 1930년 2월 6일부터 9일, 11일, 12일, 14일, 24일, 25일, 26일 보도는 ‘한국독립운동개황’이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연재된 보도였다(손과지, 2010; 김제기, 2015). 이를 종합해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신문은 <대공보(大公報)>, <중앙일보(中央日報)>, <민국일보(民國日報)>, <시보(時報)>, <신보(申報)>, <홍기(紅旗)> 등 6종으로 나타난다.

박성우(2022)는 이들 신문 외에 <상담민보(湘潭民報)>, <신신보(新晨報)>, <전민보(全民報)>, <태오사보(泰晤士報)>, <화북일보(華

北日報)>, <중경신속보(重慶新蜀報)>, <국민공보(國民公報)>, <세계일보(世界一報)>, <순천시보(順川時報)>, <월화보(越華報)>, <호남국민일보(湖南國民日報)> 등 11종의 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했다. 기 보도된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발굴했다.

박성우(2022)는 기 연구된 보도 49건 중 21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21건을 제외하면 104건이 기존에는 연구된 적 없는 보도이다. 특히 이 중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최초 보도라고 알려졌던(손과지, 2010, 118; 이지은, 2021, 104) 1929년 12월 11일의 <시보> 보도보

<표 1> 광주학생독립운동 신규발굴 보도(박성우, 2022, 250)

신규 발굴 여부	정치적 입장	신문명	지역	창간 연도	기 연구 보도	신규 발굴 보도	총계
기 연구 신문	국민당 계열	대공보(大公報)	천진	1902	2	5	7
		민국일보(民國日報)	상해	1916	9	0	9
		시보(時報)	상해	1904	5	0	5
		중앙일보(中央日報)	상해	1928	1	0	1
	기타	신보(申報)	상해	1872	4	0	4
신규 발굴 신문	국민당 계열	상담민보(湘潭民報)	호남	1926	0	1	1
		신신보(新晨報)	북경	1928	0	1	1
		전민보(全民報)	북경	1928	0	11	11
		태오사보(泰晤士報)	천진	1917	0	5	5
		화북일보(華北日報)	북경	1929	0	51	51
	공산당 계열	중경신속보(重慶新蜀報)	사천	1921	0	2	2
	기타	국민공보(國民公報)	사천	1911	0	4	4
		세계일보(世界一報)	북경	1925	0	5	5
		순천시보(順川時報)	북경	1901	0	3	3
		월화보(越華報)	광주	1927	0	2	2
호남국민일보(湖南國民日報)		호남	1928	0	14	14	
계					21	104	125

1) 상해의 <국민일보(國民日報)>, 무한(武漢)의 <중산일보(中山日報)>, <무한일보(武漢日報)>, 복건(福建)의 <민국일보(民國日報)>, <북평일보(北平日報)>, <소호보(小報湖)>, <천진일보(天津日報)>, 항주(杭州)의 <국민일보>, 안경(安慶)의 <국민일보> (손과지, 2010, 128; 김제기, 2015, 192).

다 앞서는 1929년 12월 6일의 보도 3건을 새롭게 발굴하였다.²⁾ 그러나 보도의 존재와 내용의 개요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박성우(2022)는 최초 보도인 1929년 12월 11일 보도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4건의 동일자 신문들에서 보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들이 경성의 신연합통신 10일 보도를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새로 발굴된 사례들에서 이처럼 한국이나 일본 현지의 보도를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성우(2022)의 연구는 수집한 자료의 형식을 관찰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수집한 중국 보도 자료의 내용적 특성에 관한 분석은 미진하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은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연구의 확장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발굴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중국 보도의 특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2. 최초 보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중국 매체에서 최초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다룬 보도로 알려진 것은 1929년 12월 11일 <시보>의 보도이다(손과지, 2010; 이지은, 2021). <시보>의 1929년 12월 11일 관련 보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韓生被捕九百餘人
한학생 900여명 체포됨
十日京城電，此間韓人中學生因全羅南道光州學生事件，繼續反抗運動，九日晨遂與日警發生衝突，當局派出全部警官鎮壓，被捕學生共計九百人，鐘路警察廳以為裏面有黑幕指導，一律搜查，結果，檢舉左派主義者三十餘人，(聯合社)十日東京電，報載漢城韓學生暴動，全體警隊均出動，學生被捕者九百餘人，蓋中學校韓日學生久相齟齬，今乃發作(路透社)
10일 경성 통신 한인 중학생이 전라남도 광주학생사건으로 잇달아 반항운동을 하였다. 9일 새벽 일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여 당국에서 모든 경관을 파견하여 학생 총 900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종로경찰청은 배후에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 일제히 조사를 하였다. 결과, 좌파주의자 30여명을 검거하였다. (연합사)10일 도쿄통신 한성 한학생이 폭동을 일으켜 전체 경대가 출동하였고 학생 900여명이 체포되었다. 중학교 한일학생사이의 갈등이 오늘 폭발한 것이다.
<時報> 1929년 12월 11일 제1장3 기사

보도 배경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보도로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의 핵심 내용은 12월 9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과 경찰의 충돌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 이전, 5일 전 12월 6일의 보도에서도 서울 지역의 학생 체포에 관한 짧은 보도가 3개 신문에서 등장한다. 해당 보도와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日人大捕朝鮮學生
共一百二十七名
일인 조선학생 대거 체포
총 127명
日本聯合社京城五日電、二日晨至三日晨、有以京城府內私立中等學校為中心、散布過激激文者、鐘路署截至四日正午、檢舉中等學生及左傾分子之青年百二十七名、(內有女性六名)、
일본연합사 경성 5일 통신, 2일 아침부터 3일 아침까지, 경성부내에서는 사립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과격한 글을 배포하는 자가 있었다. 종로서에서는 4일 정오까지 중등학생 및 좌파분자 청년 총 127명을 검거되었다(이 중 여성 6명).
<世界日報> 1929년 12월 6일 제3판 기사

2) <세계일보> 『日人大捕朝鮮學生 共一百二十七名』, <순천시보> 『朝鮮京城捕獲 過激學生 一百二十七名』, <화북일보> 『朝鮮大獄 百餘青年學生被捕』(박성우, 2022, 249).

朝鮮京城捕獲 過激學生
一百二十七名
조선경성체포 과격 학생
127명

京城五日新聯電 二日晨至三日晨有以京城府內私立中等學校為中心、撒布過激激文者、鐘路署、截至四日正午、檢舉中等學生及左傾分子之青年百二十七名、(內有女性六名)

경성 5일 신연합통신 2일 아침부터 3일 아침까지, 경성부 내에서는 사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과격한 글을 배포하는 자가 있었다. 종로서에서는 4일 정오까지 중등학생 및 좌파분자 청년 총 127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에 여성은 6명이다.

<世界日報> 1929년 12월 6일 제3판 기사

朝鮮大獄
百餘青年學生被捕
조선대옥
백여 명 청년학생 체포

【京城五日新聯電】二日晨至三日晨。有以京城府內私立中等學校為中心。撒布過激激文者。鐘路署截至四日正午檢舉中等學生及左傾分子之青年百二十七名。內有女性六名。

[경성5일 신연합통신] 2일 아침부터 3일 아침까지, 경성부 내에서는 사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과격한 글을 배포하는 자가 있었다. 종로서에서는 4일 정오까지 중등학생 및 좌파분자 청년 총 127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에 여성은 6명이다.

<華北日報> 1929년 12월 6일 제3판 기사

총 3종의 신문, <세계일보>, <순천시보>, <화북일보>에서 이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 3개 신문은 모두 북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문으로, 1929년 12월 5일 일본연합사의 보도를 동일하게 인용하여 원문이 일치한다. 보도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학생들이 과격한 격문을 배포해 127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연관된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으며, 서울 지역의 학생 운동에 관련된 보도로만 보인다.

그러나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벌어진 격문 배포는 조선청년총동맹 측과 조선학생전위동맹 측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옹호하고 지지하

기 위해 각각 추진하던 계획이었다. 준비 과정은 달랐지만 각 학교의 학생동원은 구성원이 협의하여 추진했고, 격문 배포 날짜를 12월 2일로 합의하여 추진한 것이다(김성민, 2013, 230-240). 이후 일본 경찰의 사상범 수사 전담 형사들이 12월 4일 사회운동단체, 종교계 인물 등 120명을 체포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이 사실들은 보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용어상으로는 '광주'라고 특정되지만 시기적으로는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를 일컫고, 지리적으로는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학생운동을 총칭하는 명칭이다(윤선자, 2010; 김성민, 201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광주'라는 명칭은 운동의 지리적 범위를 한정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해당 시기 전국 단위의 학생 중심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배경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다. 따라서 해당 보도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사건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12월 2일 서울 지역 학생들의 격문 배포를 보도한 <세계일보>, <순천시보>, <화북일보>의 12월 6일 보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련된 최초 보도로 해석된다.

11월 12일 광주 지역에서 대규모 2차 시위가 발생한 이후 보도통제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웠고(김성민, 2013, 216) 11월 중 목포와 나주의 시위도 개인적 경로를 바탕으로 계획·추진되었다(김성민, 2013, 220). 이 점에서 12월 서울에서의 1차 시위의 보도는 일반 대중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중국의 지지와 중국 내 한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보도였다. 기존의 최초 보도는 본격적인 시위와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12월 5일 이후의

사건을 다뤘다. 그러나 본격적 시위가 발생하기 이전 사건인 12월 2일의 격문 배포도 중국까지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12월 11일의 대규모 충돌 보도가 있기 전부터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충돌 사건이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연속성이 담보된다.

〈세계일보〉, 〈순천시보〉, 〈화북일보〉의 보도는 모두 동일하게 일본연합사의 1929년 12월 5일 보도를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어 내용도 동일하다. 따라서 보도의 연속성은 이 3개 보도가 인용한 피인용보도에 있다. 〈시보〉의 1929년 12월 11일 보도가 최초 보도라고 설명되지만, 동일한 일자에 〈순천시보〉, 〈전민보〉, 〈태오사보〉, 〈화북일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들 또한 1929년 12월 10일 일본연합사의 보도를 동일하게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보도는 한국 현지 또는 일본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져와 인용하고 있다. 이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국 보도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보도 간 인용관계

박성우(2022)가 새롭게 발굴한 중국 보도의 내용 검토를 통해 내용이 동일한 보도를 추출하고, 이 보도들이 인용한 피인용보도를 검토하였다. 동일한 원문을 가지고 있는 보도들의 서두에 인용한 신문 또는 통신사명과 출처, 또는 일자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명시하였고, 아닌 경우는 원문에 표기

된 일자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중국 보도를 ‘인용보도’, 중국 보도에서 인용한 보도를 ‘피인용보도’라고 명명하였다. 인용보도는 총 45건, 피인용보도는 총 19건 도출되었다. 피인용보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보도마다 원문은 동일해도 피인용보도의 출처를 밝히는 표현이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연합사의 경우 신연합통신이라고 표기하거나 일본연합사, 연합사 등으로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으나 원문이 동일할 시 같은 피인용보도로 묶었다. 세계신문 보도는 인용보도에 따라 ‘한경’, ‘한성’ 등을 혼용하고 있어 통일하지 않고 원문의 표기를 따랐다. 그 결과 주된 피인용보도 신문으로 세계신문, 일본연합사, 도쿄 로이터통신, 상해신문통신사를 식별할 수 있었고, 경성통신, 도쿄통신은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전체 개황을 보도한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 보도(A)와 특정한 사건이 아닌 동향을 보도한 세계신문 한경특보 1930년 2월 1일 보도(I)를 제외하면 많은 보도가 서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첫째, 일본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보도는 도쿄통신의 1929년 12월 26일 보도(B), 도쿄 로이터통신의 1929년 12월 28일 보도(C), 일본연합사 1930년 1월 18일 보도(S)이다. B와 C는 1929년 12월 24일 도쿄에서의 시위 계획이 발각되어 실패했다는 것을, S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을 어떻게 극복할지 신문통신사를 초대해 수습 의견을 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둘째, 평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보도는 도쿄 로이터통신 1930년 1월 23일 보도(D)와 연도불명의 세계신문 한경특보 2건(J, K)이다. 1930년 1월 20일 전후로 발생한 평양 지역의

〈표 2〉 광주학생독립운동 중국 보도 피인용보도

코드	피인용보도	보도사건 요약
A	경성통신[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 제1호]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사건 개황 보도로 광주학생들의 시위와 목포·나주로의 전파, 서울 및 전국으로의 확산과 도쿄, 노동자, 농민 등 해외 및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확장 보도
B	도쿄통신[1929년 12월 26일]	도쿄 지역 24일 저녁 계획했던 시위운동 계획이 유출되어 관청 검거
C	도쿄 로이터통신[1929년 12월 28일]	도쿄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석방 시위 관련 내용과 광주 지역 사건 확산 및 정학, 광주 지역 재시위로 일본 경찰이 발표하여 40명 사살 등 서울·평양 등지 확산 내용 보도
D	도쿄 로이터통신[1930년 1월 23일]	평양에서 1930년 1월 21일, 1930년 1월 23일 발생한 대규모 시위 및 체포 내용 보도
E	상해신문통신사[1930년 1월 27일]	서울에서 1월 중 발생한 2차 도심 시위 내용을 다루고 있음
F	세계신문 북평특보[연도불명]	평진(平津) 조선유학회에서 혁명 참여를 권하는 내용
G	세계신문 천진특보[1930년 1월 28일]	천진 지역 조선대독립당주비회(朝鮮大獨立黨籌備會) 조직
H	세계신문 한경특보[1930년 1월 12일]	1930년 1월 초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운동, 특히 서울 지역 중학생의 시위와 총독부 시위 등을 보도함
I	세계신문 한경특보[1930년 2월 1일]	1월 중 전국 단위 학생들의 시위 동향을 정확한 시기/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보도
J	세계신문 한경특보[연도불명]	평양의 1930년 1월 20일 시위와 사상사태 보도
K	세계신문 한경특보[연도불명]	광주지역 시위와 전국 수업거부, 현장에서 40여명의 사살, 1월 20일 평양 지역의 학생 시위 등 보도
L	세계신문 한경보도[연도불명]	1929년 12월 서울 지역 1차시위에서 경성 숙명여학교, 금화여학교 학생, 배림학교 학생 등 수업 거부
M	세계신문 한성보도[연도불명]	5일 제2고보 시위, 7일 제1고보 시위, 9일 경신, 보성학교 시위 등 보도
N	세계신문 한성보도[연도불명]	1929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벌어진 시위운동의 전개과정 일부 보도 (공립제2고교 학생의 13일 수업거부, 45명의 학생회 간부 체포 등)
O	일본연합사[1929년 12월 5일]	12월 2일부터 3일까지의 격문 배포로 인해 4일 학생 127명 체포(6명 여성 포함)
P	일본연합사[1929년 12월 10일]	12월 9일 오전의 충돌과 학생 체포 등
Q	일본연합사[1929년 12월 11일]	광주에서 최초 발생한 기차 충돌 과정 보도
R	일본연합사[1930년 1월 15일]	12월 15일 발생한 서울 지역 수업거부 시위와 검거 현황을 보도
S	일본연합사[1930년 1월 18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도쿄에서 조선은행 총재, 경성상업회 등이 12월 18일 신문통신 대표 50명을 초대해 수습 의견을 구함

학생 시위를 보도하고 있다.

셋째,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들의 움직임 보도는 연도불명의 세계신문 북평특보(F)와 세계신문 천진특보 1930년 1월 28일 보도(G)이다. F는 1930년 1월 19일 북평대학 전체회에서 평진 조선유학생회의 혁명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G는 천진의 조선대독립당주비회 조직을 보도하고 있다.

총 12종 신문에서 45건 보도를 추출하였다. 〈호남국민일보〉와 〈화북일보〉가 각 10건, 〈대공보〉와 〈세계일보〉가 각 4건, 〈국민공보〉와 〈시보〉와 〈순천시보〉가 각 3건, 〈중경신춘보〉와 〈전

민보)와 <태오사보>가 각 2건, <중앙일보>와 <신보>가 각 1건씩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연도로는 1929년 12월 보도가 20건, 1930년 1월 보도가 16건, 1930년 2월 보도가 9건으로 나타났다. 인용보도의 코드 구성은 박성우(2022)가 만든 '기사' 코드 제작 방식을 준용하였다. 코드는 '신

문사명 코드-발간일자(6자리)'로 구성되며, 신문사명 코드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의 피인용보도와 인용보도의 관계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고, 이 관계를 직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모드 네트워크 형식으로 <그림 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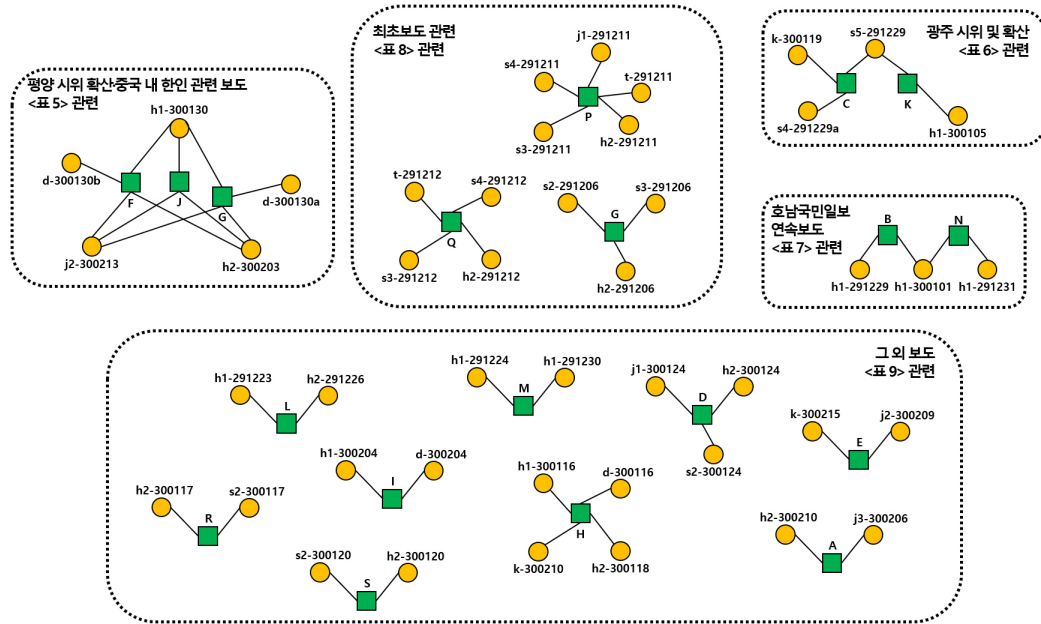
<표 3> 인용보도 신문사명 코드(박성우, 2022, 246 재구성)

신문명	코드	신문명	코드	신문명	코드	신문명	코드
국민공보	k	순천시보	s3	전민보	j1	태오사보	t
대공보	d	시보	s4	중경신춘보	j2	호남일보	h1
세계일보	s2	신보	s5	중앙일보	j3	화북일보	h2

<표 4> 광주학생독립운동 중국 보도 인용보도 및 피인용보도와 연결관계

코드	인용보도	기사제목		수록 피인용보도
		원어	한국어	
k-300119	국민공보[1930년 01월 19일]	韓國學生與日兵巷戰	한국학생들이 일본 병사와 거리에서 싸우다.	C
k-300210	국민공보[1930년 02월 10일]	韓民族運動醞釀成熟	준비되고 성숙해진 한국인의 민족운동	H
k-300215	국민공보[1930년 02월 15일]	韓國革命運動再接再厲	한국혁명운동 한층 더 분발하라!	E
d-300116	대공보[1930년 01월 16일]	醞釀成熟之韓民族運動	준비되고 성숙해진 한국인의 민족운동	H
d-300130a	대공보[1930년 01월 30일]	朝鮮大獨立黨籌備會成立	조선독립당주비회(朝鮮獨立黨籌備會)성립	G
d-300130b	대공보[1930년 01월 30일]	平津韓國學生會	평진(平津)한국학생회	F
d-300204	대공보[1930년 02월 04일]	韓學生繼續猛烈奮鬥	한국학생이여, 계속 맹렬하게 분투하라!	I
s2-291206	세계일보[1929년 12월 06일]	日人大捕朝鮮學生 共一百二十七名	일인 조선학생 대거 체포 총 127명	O
s2-300117	세계일보[1930년 01월 17일]	朝鮮學潮益劇 學生被捕三百餘名 當局對學校警戒嚴重	조선학생 운동 더 격렬해짐 학생 300여명 체포 당국은 학교에 대한 경계를 강화	R
s2-300120	세계일보[1930년 01월 20일]	朝鮮 學生騷擾事件 已成可憂慮之狀態 商業領袖徵求善後之意見	조선 학생 소동사건 이미 우려할 상태가 되었음 상업 지도자가 사후에 대한 의견을 구함	S
s2-300124	세계일보[1930년 01월 24일]	朝鮮學生運動 波及平壤方面 女生舉行示威大會	조선학생운동 평양방면 과격 여성 시위대회 거행	D
s3-291206	순천시보[1929년 12월 06일]	朝鮮京城捕獲 過激學生 一百二十七名	조선경성체포 과격 학생 127명	O
s3-291211	순천시보[1929년 12월 11일]	朝鮮京城 學生被檢舉者近千人 有嫌疑者三十餘名 内幕中似大有人在	조선경성 학생 검거된 자 천여명 가까이 혐의가 있는 자 30여명 내막 속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음	P
s3-291212	순천시보[1929년 12월 12일]	朝鮮學生騷擾真相 引起共產主義派之策動 將嚴重取締背景中人物 朝鮮總督署之公布	조선학생 소란 진상 공산주의와 기획을 야기시킬 배후 인물을 엄중히 단속 조선총독서의 공포	Q
s4-291211	시보[1929년 12월 11일]	韓生被捕九百餘人	한학생 900여명 체포됨	P
s4-291212	시보[1929년 12월 12일]	日總督所發表 韓日學生衝突經過	일본총독에서 발표한 한일학생 충돌경과	Q

코드	인용보도	기사제목		수록 피인용보도
		원어	한국어	
s4-291229a	시보[1929년 12월 29일]	朝鮮學生工人在東京續被捕百名	도쿄에서 조선 학생, 노동자 백명 체포	C
s5-291229	신보[1929년 12월 29일]	韓國獨立運動 學生游行示威高呼口號 被捕千名被殺四十餘名	한국독립운동 학생시위행진 구호 소리 높여 부름 1000명 체포 40여명 피살	C, K
j1-291211	전민보[1929년 12월 11일]	高麗學警衝突以後 檢舉學生達九百名	고려學警 충돌 이후 검거된 학생 900명에 달함	P
j1-300124	전민보[1930년 01월 24일]	韓國獨立運動 男女青年猛進	한국독립운동 남녀청년 맹진	D
j2-300209	중경신속보[1930년 02월 09일]	韓國革命運動再接再厲	한국혁명운동 한층 더 분발하라!	E
j2-300213	중경신속보[1930년 02월 13일]	韓人積極組織大獨立黨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대독립당(大獨立黨)을 조직하다.	F, G, J
j3-300206	중앙일보[1930년 02월 06일]	韓國獨立運動概況	한국독립운동의 개황(概況)	A
t-291211	태오사보[1929년 12월 11일]	朝鮮學生被捕 檢舉學生達九百餘名 嫌疑有據者三十餘名	조선학생 체포 검거된 학생 구백여명 달함 혐의 입증자 30여명	P
t-291212	태오사보[1929년 12월 12일]	日人口中之朝鮮學生暴動 當然謂受共黨煽惑 其實起於日韓學生之衝突 韓籍學生不平遂起而反抗	일본인 구중의 조선학생폭동 당연 공산당선동 받음 실재는 일한학생의 충돌에 의한것임 한국적학생 불평을 일으켜 반항	Q
h1-291223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3일]	韓學生反日暴動真相	한국 학생 반일 폭동의 진상	L
h1-291224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4일]	韓學生反日愈激烈	한국 학생들의 반일 더 격렬해지다.	M
h1-291229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9일]	秘謀起事	비모기사(秘謀起事)	B
h1-291230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30일]	日韓青年羣起革命	일한청년군기(日韓青年群起)하여 혁명	M
h1-291231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31일]	韓京反日運動性質重大	한경(韓京) 반일운동 성질 중대	N
h1-300101	호남국민일보[1930년 01월 01일]	韓人反日愈形劇烈	한인반일(韓人反日) 더욱더 격렬해지다.	B, N
h1-300105	호남국민일보[1930년 01월 05일]	韓國學生與日兵巷戰	한국학생이 일병(日兵)과 항전(巷戰)	K
h1-300116	호남국민일보[1930년 01월 16일]	韓國民族運動嚴重	한국민족운동 심각하다.	H
h1-300130	호남국민일보[1930년 01월 30일]	日兵慘殺三百韓學生	일병(日兵) 300명 한학생(韓學生)들을 참살하다.	F, G, J
h1-300204	호남국민일보[1930년 02월 04일]	繼續猛烈奮鬥	계속 맹렬하게 분투하라!	I
h2-291206	화북일보[1929년 12월 06일]	朝鮮大獄 百餘青年學生被捕	조선대옥 백여명 청년학생 체포	O
h2-291211	화북일보[1929년 12월 11일]	朝鮮學生反日運動 與京城警官隊衝突 被檢舉者九百餘名	조선학생 반일운동 경성 경관대와 충돌 검거된 사람 구백여명	P
h2-291212	화북일보[1929년 12월 12일]	朝鮮學生反日運動 日本朝鮮督府之公報 竟認爲與共產黨有關	조선학생 반일운동 일본조선독부의 공보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꾸밈	Q
h2-291226	화북일보[1929년 12월 26일]	朝鮮民族運動擴大 女學生亦參加罷課 被捕學生百六十人	조선민족 운동 확대 여학생도 수업거부 참여 체포된 학생 160명	L
h2-300117	화북일보[1930년 01월 17일]	朝鮮反日再接再厲 男女生持國旗唱革命萬歲 結果被日警拘禁三百餘人	조선 반일 한층 더 분발 남녀학생 국기 들고 혁명만세를 부름 결국 일본 경찰에 300여명 구금	R
h2-300118	화북일보[1930년 01월 18일]	朝鮮民族運動誌詳 五十萬學生爲中心之全國 總動員日本統治者大恐慌	조선민족운동의 자세한 기록 50만 학생을 중심으로 된 전국 총동원 일본통치자 대공황	H
h2-300120	화북일보[1930년 01월 20일]	鮮籍學生之騷擾	조선학생의 소동	S
h2-300124	화북일보[1930년 01월 24일]	高麗學生 又一大批被逮捕	고려학생 또 무더기로 체포	D
h2-300203	화북일보[1930년 02월 03일]	朝鮮一致反日 天津僑民組織大獨立黨 北平留學生會發表通電 開城韓警加入群眾示威	조선 일제히 반일 천진교민 대독립당 결성 북평 유학생회 통신 발표 개성 한 경찰 군중시위 참여	F, G, J
h2-300210	화북일보[1930년 02월 10일]	朝鮮反日運動 此次大爆發之真相：遠因爲日本壓迫韓人反響，近因係起於日韓學生衝突	조선반일운동, 이번 대폭발의 진실: 간접적 원인은 일본의 압박에 대한 한인의 반항, 직접적 원인은 일한학생의 충돌	A



〈그림 1〉 보도와 내용 주요 인용관계

총 15개의 고립네트워크가 도출되었다. 1개의 보도에서 1~3개의 피인용보도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1개의 피인용보도를 최대 5개의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었다(P). 이 피인용보도는 1929년 12월 초 서울 지역으로 확산된 1차 시위에 관련된 일본연합사의 1929년 12월 10일 보도였다. 대부분의 고립네트워크가 특정 피인용보도 1개와 여러 인용보도의 관계로, 특정 피인용보도의 예고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단일한 피인용보도만 활용하지 않고 여러 피인용보도를 활용한 네트워크는 평양 시위 확산·중국 내 한인 관련 보도, 광주 시위 및 확산, 호남국민일보 연속보도 등 3개로 나타났다. 피인용보도에서 언급된 사건의 중요성과 특이성을 파악하여 고립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최초 보도에 관련된 고립네트워크 3개를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평양 시위 확산과 중국 내 한인 관련

피인용보도를 다룬 인용보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들 보도는 1930년 1월 중 발생한 중국 내 한국인의 움직임·한국 북부(평양) 지역으로의 확산을 여러 보도를 인용하여 함께 보도하였다. 〈호남국민일보〉 1930년 1월 30일 보도, 〈화북일보〉 1930년 2월 3일 보도, 〈중경신속보〉 1930년 2월 13일 보도는 평진과 천진 지역의 한인의 움직임과 평양 지역의 1월 시위를 함께 보도하고 있다. 반면 〈대공보〉는 1930년 1월 30일에 2개의 보도를 따로 인용하여 따로 보도하였다. 평진한국학생회의 참여에 관한 보도(d-300130b), 천진에서 조선독립당주비회가 조직된 보도이다. 둘다 세계신문 특보를 인용하였으나, 〈대공보〉는 천진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천진 지역의 사건을 따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남국민일보〉, 〈화북일보〉, 〈중경신

〈표 5〉 평양 시위 확산·중국 내 한인 관련 보도

피인용보도		인용보도		보도사건
F	세계신문 북평특보 [연도불명]	d-300130b	대공보[1930년 1월 30일]	평진(平津) 조선유학회에서 혁명 참여를 권하는 내용
		h1-300130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30일]	
		h2-300203	화북일보[1930년 2월 3일]	
		j2-300213	중경신축보[1930년 2월 13일]	
G	세계신문 천진특보 [1930년 1월 28일]	d-300130a	대공보[1930년 1월 30일]	천진 지역 조선대독립당주비회(朝鮮大獨立黨籌備會) 조직
		h1-300130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30일]	
		h2-300203	화북일보[1930년 2월 3일]	
		j2-300213	중경신축보[1930년 2월 13일]	
J	세계신문 한경특보 [연도불명]	h1-300130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30일]	평양의 1930년 1월 20일 시위와 사상사태 보도
		h2-300203	화북일보[1930년 2월 3일]	
		j2-300213	중경신축보[1930년 2월 13일]	

축보)가 평진·천진·평양의 사건을 모아 한번에 보도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화북일보〉, 〈중경신축보〉는 〈대공보〉와 〈호남국민일보〉보다 약 4일에서 2주 가량 늦게 보도하였다. 〈화북일보〉는 북경에서 발간되지만, 〈중경신축보〉는 사천 중경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기에 지리적 위치가 보도 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운동 시위와 확산과정을 다룬 보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들 보도는 광주에서 시위에서 충돌로 인해 40여명의 사상과 지역의 확산 등 1929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과

정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 보도 내용은 광주지역 시위의 서울 및 타지역 확산을 다루고 있어 로이터통신과 세계신문사의 두 보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다. 〈신보〉 1929년 12월 29일 보도(s5-291229)가 2개 보도를 함께 인용하였는데, 도쿄 로이터통신 1929년 12월 28일 보도(C)를 인용한 것은 도쿄의 학생 시위 현황을 보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보도는 시위가 발생한 경우보다 수업 중단으로 인한 시위와 그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발포, 일본 경찰의 쌍방 향전과 일본 측의 보도통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호남국민일보의 연속보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광주 시위 및 확산

피인용보도		인용보도		보도사건
C	도쿄 로이터통신 [1929년 12월 28일]	s4-291229a	시보[1929년 12월 29일]	도쿄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석방 시위 관련 내용과 광주 지역 사건 확산 및 정학, 광주 지역 재시위로 일본 경찰이 발포하여 40명 사상 등 서울·평양 등지 확산 내용 보도
		s5-291229	신보[1929년 12월 29일]	
		k-300119	국민공보[1930년 1월 19일]	
K	세계신문 한경특보 [연도불명]	s5-291229	신보[1929년 12월 29일]	광주지역 시위와 전국 수업거부, 현장에서 40여명의 사상 등 보도
		h1-300105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5일]	

〈표 7〉 호남국민일보 연속보도

피인용보도		인용보도		보도사건
B	도쿄통신 [1929년 12월 26일]	h1-291229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9일]	도쿄 지역 24일 저녁 계획했던 시위운동 계획이 유출되어 관청 검거
		h1-300101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1일]	
N	세계신문 한성보도 [연도불명]	h1-291231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31일]	1929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벌어진 시위운동의 전개과정 일부 보도(제2보고 학생의 13일 수업거부, 45명의 학생회 간부 체포 등)
		h1-300101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1일]	

이들 보도는 도쿄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1929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차 시위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호남국민일보〉 1929년 12월 29일(h1-291229)에는 도쿄에서 발생한 시위운동 계획의 유출 사건을 보도하였고 그 이틀 뒤인 1929년 12월 31일(h1-291231)에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차 시위의 경과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나누어서 보도했던 내용을 1930년 1월 1일 통합하여 함께 보도(h1-300101)한 것이다. 12월 29일에 보도한 도쿄에서의 사건이 12월 31일에 보도한 서울 지역의 사건과 연관되어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1930년 1월 1일에 정리하여 보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 보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전술하였듯 중국 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1929년 12월 6일의 보도이고, 이 보도는 일본연합사의 1929년 12월 5일 보도를 인용하였다. 이후 12월 9일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를 광주에서의 학생 시위와 연관지어 보도한 것이 1929년 12월 11일의 보도로 이 보도도 일본연합사의 1929년 12월 10일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시위의 배경이 된 광주 지역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다.

〈표 8〉 최초 보도 관련

피인용보도		인용보도		보도사건
O	일본연합사 [1929년 12월 5일]	s2-291206	세계일보[1929년 12월 6일]	12월 2일부터 3일까지의 격문 배포로 인해 4일 학생 127명 체포(6명 여성 포함)
		s3-291206	순천시보[1929년 12월 6일]	
		h2-291206	화북일보[1929년 12월 6일]	
P	일본연합사 [1929년 12월 10일]	s3-291211	순천시보[1929년 12월 11일]	12월 9일 오전의 충돌과 학생 체포 등
		s4-291211	시보[1929년 12월 11일]	
		jl-291211	전민보[1929년 12월 11일]	
		t-291211	태오사보[1929년 12월 11일]	
		h2-291211	화북일보[1929년 12월 11일]	
Q	일본연합사 [1929년 12월 11일]	s3-291212	순천시보[1929년 12월 12일]	광주에서 최초 발생한 기차 충돌 과정 보도
		s4-291212	시보[1929년 12월 12일]	
		t-291212	태오사보[1929년 12월 12일]	
		h2-291212	화북일보[1929년 12월 12일]	

일본연합사가 12월 5일, 10일, 11일 보도를 연속적으로 인용한 신문은 <순천시보>와 <화북일보>로, 둘 다 북경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순천시보>는 일본인이 1901년 설립한 신문사로 1905년 3월 이후 일본 외무성의 기관신문이 되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보도단체다. 반면 <화북일보>는 1929년 1월에 창간된, 중국 국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신문이다(李潤波, 張惠民, 2006).

그 외의 보도는 다음 <표 9>와 같다.

A는 경성통신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의 보도를 인용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반적인 개황을 정리하여 보도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중앙일보에서 개황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였고 설명하고 있으나(손과지, 2010, 121; 김재기, 2015, 191) <화북일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즉, <중앙일보>만의 자체적인 취재라기보다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의 배포 내

<표 9> 그 외 보도

피인용보도		인용보도		보도사건
A	경성통신 [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회 제1호]	j3-300206	중앙일보[1930년 2월 6일]	한국독립운동의 개황으로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에서 보도한 사건의 내역을 보도함, 광주학생들의 시위와 목포·나주로의 전파, 서울 및 전국으로의 확산과 도쿄, 노동자, 농민 등 해외 및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확장 보도
		h2-300210	화북일보[1930년 2월 10일]	
D	도쿄 로이터통신 [1930년 1월 23일]	s2-300124	세계일보[1930년 1월 24일]	평양에서 1930년 1월 21일, 1930년 1월 23일 발생한 대규모 시위 및 체포 내용 보도
		j1-300124	전민보[1930년 1월 24일]	
		h2-300124	화북일보[1930년 1월 24일]	
E	상해신문통신사 [1930년 1월 27일]	j2-300209	중경신속보[1930년 2월 9일]	서울에서 1월 중 발생한 2차 도심 시위 내용을 다루고 있음
		k-300215	국민공보[1930년 2월 15일]	
H	세계신문 한경특보 [1930년 1월 12일]	d-300116	대공보[1930년 1월 16일]	1930년 1월 초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운동, 특히 서울 지역 중학생의 시위와 총독부 시위 등을 보도함
		h1-300116	호남국민일보[1930년 1월 16일]	
		h2-300118	화북일보[1930년 1월 18일]	
		k-300210	국민공보[1930년 2월 10일]	
I	세계신문 한경특보 [1930년 2월 1일]	d-300204	대공보[1930년 2월 4일]	1월 중 전국 단위 학생들의 시위 동향을 정확한 시기/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보도
		h1-300204	호남국민일보[1930년 2월 4일]	
L	세계신문 한경보도 [연도불명]	h1-291223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3일]	1929년 12월 서울 지역 1차시위에서 경성 숙명여학교, 금화여학교 학생, 배림학교 학생 등 수업 거부
		h2-291226	화북일보[1929년 12월 26일]	
M	세계신문 한성보도 [연도불명]	h1-291224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24일]	5일 제2고보 시위, 7일 제1고보 시위, 9일 경신보성학교 시위 등 구체적으로 보도
		h1-291230	호남국민일보[1929년 12월 30일]	
R	일본연합사 [1929년 12월 10일]	s2-300117	세계일보[1930년 1월 17일]	12월 15일 발생한 서울 지역 수업거부 시위와 검거 현황을 보도
		h2-300117	화북일보[1930년 1월 17일]	
S	일본연합사 [1930년 1월 18일]	s2-300120	세계일보[1930년 1월 20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도쿄에서 조선은행 총재, 경성상업회 등이 12월 18일 신문통신 대표 50명을 초대해 수업 의견을 구함
		h2-300120	화북일보[1930년 1월 20일]	

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보도들이(D, E, H, L, M, R) 서울에서 12월 중 벌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세계신문 한경특보 1930년 2월 1일 보도(I)는 1월 중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고, 도쿄 로이터통신 1930년 1월 23일 보도를 인용한 보도는 평양의 사건을 보도하였다. 피인용보도의 보도 일자가 확인되는 많은 신문들이 빠르게는 1일 전의 피인용보도를 인용하여 신속히 보도하고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새롭게 발굴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중국 보도 자료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하여 후속연구의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보도 자료가 동일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 중국 보도 자료가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료를 동일하게 인용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보도라고 새롭게 주장된 1929년 12월 6일의 보도와 광주학생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2월 6일의 서울 격문 배포와 체포 사건 보도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지하기 위하여 확산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최초 보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해당 신문을 출처로 보도된 내용들이 한국이나 일본 현지의 앞선 보도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시보>의 1929년 12월 11일 보도도 일본연합사의 1929년 12

월 10일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에 같은 날 <순천시보>, <전민보>, <태오사보>, <화북일보> 등에서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개황을 연속적으로 보도한 <중앙일보>의 1930년 2월 6일 보도가 상해한인 각단체연합회와 연관되며, 동일한 내용이 <화북일보>의 1930년 2월 10일에 경성통신을 인용하여 보도되었으므로 보도의 출처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신문사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보도 내용이 피인용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해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보도한 신문사는 <순천시보>와 <화북일보>였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연합사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보>의 경우 일본인이 설립한 신문사로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보도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피인용한 신문사와의 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내 인식과 파급력 검토를 위하여, 보도 신문이 가진 특성과 피인용신문의 출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친일적인 <순천시보>의 경우 일본연합사의 신문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관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의 1930년 2월 6일 시작된 한국독립운동의 개황 보도가 초반엔 폭동이라는 표현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어갔다고 하지만(김재기, 2015, 191) 1930년 2월 6일의 개황 보도부터 중국 지역 한국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인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의 제1호 보도자료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 내

신문의 정치적 견해와 이들이 인용한 한국 및 일본 신문사의 입장차는 해당 시기 보도를 통한 정보 전파의 정치적 지형을 파악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 보도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거나 출처를 서로 다

르게 표기한 관계로 피인용보도의 신문사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었다. 공통적으로 세계신문, 도쿄 로이터통신, 일본연합사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신문사명이나 보도일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원문의 일치도를 바탕으로 동일 인용을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성민 (2013). 광주학생운동. 서울: 역사공간.
- 김재기 (2015). 중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운동: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4), 185-202.
- 김재기 (2021). 미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 운동. 국제문화연구, 14(1), 149-167.
<https://doi.org/10.34223/jic.2021.14.1.149>
- 李潤波, 張惠民 (2006). 老報紙收藏. 浙江: 浙江大學出版社.
- 박성우 (2022). 광주학생독립운동 연구 지평의 확장을 위한 중국 신문 사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41-264. <http://dx.doi.org/10.16981/kliiss.53.2.202206.241>
- 손과지 (2010).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중국 매체의 보도와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117-134.
<https://doi.org/10.15799/kimos.2010..35.003>
- 윤선자 (2010).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71-115.
<https://doi.org/10.15799/kimos.2010..35.002>
- 이지은 (2021).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상해 독립운동 세력의 반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4, 101-139.
- 장세윤 (202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동북(만주)지역 확산과 한인 학생·민족운동 세력의 호응. 한국근현대사연구, 94, 133-172. <https://doi.org/10.29004/jkmch.2020.9.94.133>
- 허성태, 임영언 (202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일본지역 확산과 지지에 대한 고찰. 국제문화연구, 13(2), 71-98. <https://doi.org/10.34223/jic.2020.13.2.7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Se-yun (2020). Expansion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to North-eastern

- Area of China (Manchuria) and responses of Korean students ·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94, 133-172.
<https://doi.org/10.29004/jkmch.2020.9.94.133>
- Heo, Song-Tae & Yim, Youngeon (2020). A study on the global spread and support of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13(2), 71-98. <https://doi.org/10.34223/jic.2020.13.2.71>
- Kim, Jaigi (2015). A study on the support of Gwangju students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focus on the Shanghai.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4), 185-202.
- Kim, Jaigi (2021). Support movement for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USA.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14(1), 149-167. <https://doi.org/10.34223/jic.2021.14.1.149>
- Kim, Sung-Min (2013). (1929) Gwangju Student Movement. Seoul: History Space.
- Lee, Jieun (2021). The influence of the Shanghai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on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74, 101-139.
- Park, Seongwoo (2022). A study on Chinese Newspaper Records for broadening intellectual horizons of Gwangju Student Move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241-264.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241>
- Sun, Ke-Zhi (2010). Chinese media coverage and recognition to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35, 117-134.
<https://doi.org/10.15799/kimos.2010..35.003>
- Yoon, Seon-Ja (2010). Changes of a student movement after Gwangju Student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35, 71-115.
<http://doi.org/10.15799/kimos.2010..35.002>